

이슈브리프 558호
(2024. 6.10)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전략적 의미 및 고려사항

제558호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실
김태주 지역전략연구실
최용환 지역전략연구실



국문초록

2024년 6월 4-5일 사상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아직 생소한 측면이 있지만, 인구 구조가 젊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마지막 프런티어'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이번 회의는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한-아프리카 관계 확대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넘어 우리의 외교 지평을 세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서방 선진국들과의 가치외교 및 실용적 한중관계 복원에 이은 글로벌 사우스 접근 확대는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는 자원외교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제3세계에 대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도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가지는 다양한 전략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회의의 정례화·제도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아프리카 외교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과거 식민 모국이었던 국가들의 아프리카 정책과 식민지배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의 아프리카의 정책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통상 외교와 소프트 파워 중심의 문화외교의 병행·배합이 바람직하다. 셋째,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외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회의를 아프리카 이외에 중남미·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 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을 통해 강대국 국제정치의 진영 간 대립을 벗어난 한국의 독자적 전략 공간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중추국가, 대외정책

6월 4일 사상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연합(AU)에 소속된 55개 회원국 가운데 48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방한하였다. 아직 한국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머나먼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한국과 아프리카의 연계는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우리 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프런티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전체 인구 14억 가운데 60%가 25세 이하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이다. 이외에도 백금, 리튬, 크롬, 망간, 코발트 등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와 전략적 의미

아프리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은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이 재확인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2022년 미국은 두 번째 ‘미국-아프리카 리더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유럽 역시 2022년 여섯 번째,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개발협력포럼(FOCAC)’를 개최하여 4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일본 역시 2022년 ‘도쿄-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TICAD)’를 열고 300억달러 지원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 등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도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직접적 인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자 에티오피아는 군대를 파병하였으며, 라이베리아·이집트·모로코 등 국가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후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공식적 외교관계가 시작되었다. 냉전시기 아프리카는 남북한 간 외교적 쟁탈전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후 88서울 올림픽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외교관계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한국이 아프리카연합(AU) 옵서버 국가 자격을 획득하면서 AU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이 출범하였고, 2006년 1차 한-아프리카 포럼에는 5개국 정상은 포함한 25개국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2022년 3월 개최된 5차 포럼에는 10개국 대표가 참석하는데 그치는 등 한-아프리카 관계에는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4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국제무대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한-아프리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의제는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이다. 아프리카에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대다수 국가들이 과거 제국주의 식민 침탈의 주역이었다면, 한국과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일방적 지원이나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강화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넘어 우리의 글로벌 외교 지평 확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대상이 아프리카 동부 및 남부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표방한 글로벌 중추국가와 관련해서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서방 선진국들과의 가치외교와 실용적 한중관계 복원에 이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의 전략적 연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치열해지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다양한 광물자원의 매장지이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과의 교류 확대는 자원외교 등 경제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외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확대는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 역시 2024년 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는 등 글로벌 사우스 접근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국가 체제로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공외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앞서 한-아프리카 포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아프리카 관계에는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제도화·정례화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가 일회성·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정적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이외에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병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젊은 학생과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 상호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진행, 국가 차원은 물론 지역과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하게는 한국형 아프리카 외교 모델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접근하였지만, 제국주의·식민주의적 접근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처럼 식민 지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는 미국, 유럽 등 국가들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서구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여 평화롭고 안정적 국제사회 건설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국의 제3세계 접근 역시 원조 수혜 국가들이 종속적 입장에 처해지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한-아프리카 협력 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대다수 국가들의 아프리카 접근이 개발원조 및 경제 통상 외교에 집중하고 있던 한계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물론 한국 역시 경제협력과 개발원조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문화와 소프트 파워 외교를 병행·배합한 새로운 접근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전형적 다자외교의 무대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가 참석한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와 다자 협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모든 국가와 동등한 교류협력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을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외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중남미 글로벌 사우스 리더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도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은 일차적으로는 이들과 한국의 협력 확대 및 동반성장의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벗어난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공간 확보의 의미를 가진다. 미중 전략경쟁이 확대·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과 중러가 주도하는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진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는 그 특성상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글로벌 웨스트나 중러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스트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국가 군(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은 강대국들 간의 전략경쟁에 연루되기보다는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